

‘太陰人 體熱 腹滿 自利者’를 治療한 症例

이준희* · 김상복* · 박계수* · 정용재* · 이수경*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A Case Report on ‘fever of unknown origin, abdominal distension and diarrhea’ of Taeumin

Lee Jun-hee · Kim Sang-bok · Park Gye-soo · Jeong Yong-jae · Lee Su-kyung · Lee Eui-ju · Koh Byung-hee ·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This case is about 68-year-old woman patient, who suffered from 'fever of unknown origin, abdominal distension and diarrhea'. She was diagnosed as Taeumin and diarrhea as that of 'The Interior Disease of Taeumin'. So she was given Galgeunhaegitang and had gotten better in her symptoms.

1. 緒 論

『東醫壽世保元·肝受熱裡熱病論』에 “體熱 腹滿 自利者 熱勝則 裏證也 當用 葛根解肌湯 寒勝則 表證而 太重證也 當用 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이라 하여 太陰人 癰病에 대한 治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體熱 腹滿 自利者’이며 熱勝이면 葛根解肌湯을 쓰라고 하였다.

이에 본 著者는 腦梗塞患者의 治療과 中 ‘體熱 腹滿 自利者’의 형태로 나타난 原因不明熱을 葛根解肌湯으로 治療한 症例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단, 여기서는 『東醫壽世保元』新定方에 제시된 葛根解肌湯이 아닌 元持常의 著書 『東醫四象新編』에 제시된 葛根解肌湯을 사용하였다.

2. 患者要約

① 姓名 : 김○○ 여자/68세

② 主訴 :

發熱 (주로 오후에만, BT 39.0℃까지 발병 후 타 병원 재원 시부터)

發赤 (얼굴, 목덜미 - 1~5cm크기 境界 無)

泄瀉 (하루에 수 차례, 臭氣가 심하고, 질은 暗褐色, 배변 후 후증감을 호소)

面部浮腫 (주로 볼, 턱주위, 목덜미), 腹部膨滿感(복진 시 복부전체에서 압통 호소)

口乾, 眩暈, 頭痛, 胸煩, 嗜眠, 舌微紅 苔黃白

③ 過去歷 :

10여년 전 r/o HNP of L-spine 진단 및 治療받음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이준희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02-958-9233 E-mail)xslljh@hanmail.net

1개월 전 Hypertension 인지 양약 복용 中
 입원 중 DM 인지 지속적 양약 복용 中
 입원 전까지 신경안정제(바륨), 항구토제, 고질혈
 증치료제 등의 양약 복용 중

④ 現病歷 :

2001년 1월 27일 右半身少力 等の 症狀 發生하여
 local 병원에서 Brain MRI상 腦梗塞(延髓梗塞) 診斷받
 고 治療하던 중 2001년 2월 8일 慶熙醫院 韓方病
 院 四象體質科에 入院함.

⑤ 檢査所見 :

MRI(외부필름) medulla oblongata inf.
 EKG(2/8) NSR. ST & T wave abnormality, inf &
 anterolateral ischemia
 Chest PA(2/8) Subsegmental arelectasis on RLLF
 (2/14) No change
 (2/20) No change
 CBC (2/8) 12.5-3.82-11.8-34.4 PLT348
 (2/11) 11.6- 3.55-11.8-33.3 PLT391 ESR42
 (2/14) 10.7-3.26-10.0-29.2 PLT491 ESR60
 (2/20) 8.0- 3.22-9.8-29.0 PLT616
 U/A (2/9) prot±, Glu. 0.25
 (2/20) prot30
 Urine culture(2/15) no growth, Blood culture
 (2/15) no growth
 Stool exam(2/13) neg

⑥ 體質診斷

· 體形氣像 : 키가 작고, 복부가 반대편이며 복각은
 둔각임. 체간이 상대적으로 크고 반대편의 반면
 에 사지는 짧고 비교적 여윈 상태임

· 容貌詞氣 : 얼굴은 직사각형이며 살이 많은데, 특히
 볼, 턱, 목덜미에 살이 많고 푸석 푸석한 편. 목소리
 는 작고 낮게 깔리는 편이며 약간 쉰 목소리로 들림.

· 性格 : 平素 낙천적이면서도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며, 꼼꼼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성격임.

· QSCCⅡ : 太陰人

상기 등에 근거하여 太陰人으로 診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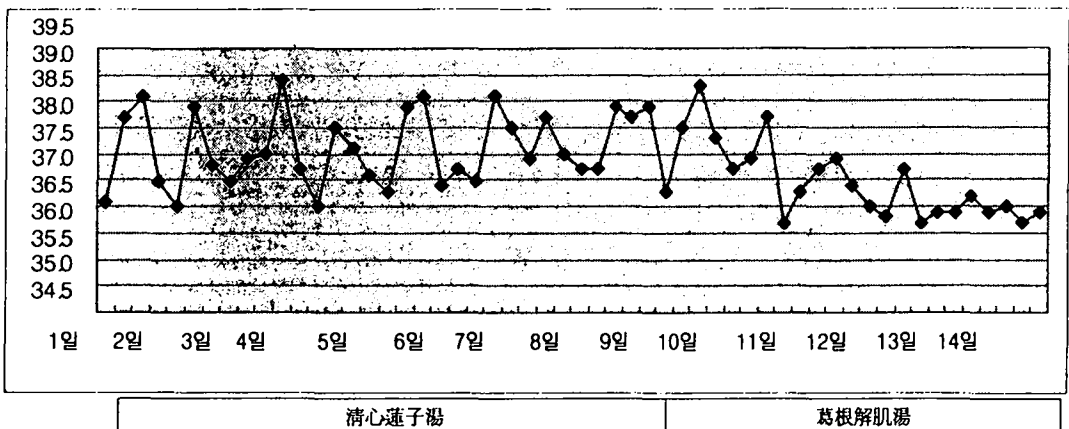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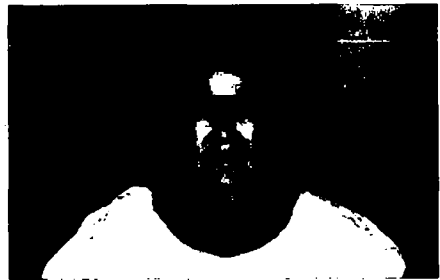


그림 1. 患者의 投藥에 따른 發熱 樣相의 變化

3. 治療經過

韓藥	投與期間(日)	投藥目標 및 變更理由	經過
1. 淸心蓮子湯 2. 牛黃淸心丸 3. 葛根解肌湯 (發熱時 B약으로 투여)	8 (2/8 ~ 2/15)	- 面部浮腫, 發赤, 胸煩, 嗜眠, 舌微紅, 苔黃白, 週期的 發熱, 泄瀉(後重感), 腹部膨滿 및 腹診상 抵抗感 등의 증상을 太陰人 燥熱證으로 진단	- 투약 후 약 3일째부터 發赤 減少. 일주일 후에는 거의 消失 - 面部浮腫 減少 - 大便 간헐적으로 2-4회 泄瀉(後重感 여전) - 腹部抵抗感 다소 減少 - 胸煩 다소 減少 - 간헐적 高熱 점점 심해짐, 微頭痛 동반(각종 검사 상 원인을 찾지 못함) - 舌微紅 苔黃白 如前 - 수면은 취하나 嗜眠 증상 如前(發熱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葛根解肌湯 (元持常)	10 (2/16 ~ 2/28)	- 發赤, 浮腫, 胸煩 등의 증상은 소실 됐으나 주기적인 午後 高熱은 계속됨. - 發汗이 거의 없고, 微頭痛, 嗜眠 등의 증상을 계속 동반 - 舌이 아직 微紅하며 苔가 微黃白한 상태 ⇒ 葛根解肌湯(元持常)	- 한약 2회 투여 후부터 髮際를 위주로 한 面部·背部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熱이 떨어지기 시작, 약 2일 투여 후 週期的 高熱 완전 消失 - 微頭痛, 似睡 등의 증상 消失 - 舌苔가 다소 얇아짐 (解熱 후 微紅한 것은 소실된 상태) - 浮腫 계속 減少(유관으로 변화인지 가능)하고 환자 몸이 가벼워진 것을 자각함. ; 실제 체중에는 큰 변화는 없음 - 대변은 하루 2-4회 다소 묽은 변으로 보나, 환자 快便임을 느낌(점차 그 횟수가 減少) - 腹部膨滿感 減少
熱多寒少湯 加 二門五味湯	3 (2/29 ~)	- 舌苔가 아직 黃白한 것이 남아있고, 복진상 약간의 저항감이 남아있음 ⇒ 熱多寒少湯	- 發熱 消失 - 腹部 膨滿感 減少 - 大便 하루 1-2회(軟便, 快便) - 舌淡紅 苔薄白

4. 考察

上記 患者는 腦梗塞(延髓梗塞)으로 入院한 患者로 入院 당시부터 發熱이 지속되었는데, 일반혈액검사상 WBC가 12,500이었으나 그 原因이 밝혀지지 않았다. 發熱 양상은 주로 오후에만 나타났으며, 최고 39.0℃까지 나타났었다. 아울러 얼굴·목덜미 등에 發赤이 나타났으며, 심한 胸煩감을 호소하였고, 面部에 浮腫을 호소하였다. 또한 入院 시부터 泄瀉를 계속하였는데 泄瀉 양상은 臭氣가 심한 暗褐色의 泄瀉 양상의 便이었으며 排便 後 後重感을 많이 호소하였다. 腹診上 腹部 전체에서 심한 壓痛을 호소하였고, 患者 본인도 腹部에 심한 膨滿感을 자각하였다. 기타 全身無力感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發熱 시에 심해지며 자러고만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밖에 頭痛 眩暈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初期 8일간 淸心蓮子湯을 투여하였는데 浮腫 發

赤 胸煩 등의 증상은 減少하였으나, 發熱 泄瀉 腹部 膨滿感의 증상은 여전하였다. 이에 『東醫四象新編』에 제시된 葛根解肌湯을 투여한 결과 泄瀉 횟수가 다소 많아지면서 排便量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髮際를 위주로 한 面部·背部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熱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투약 4일 후에는 發熱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排便 횟수가 비록 많으나 後重感이 심한 편이어서 大黃을 통한 托裏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하여 辛丑本의 葛根解肌湯이 아닌 『東醫四象新編』의 葛根解肌湯을 使用하게 되었다. 이후에 大便 횟수도 다소 減少하면서 臭氣가 減少하였고, 色도 黃色을 띄기 시작하였으며, 腹部 膨滿感 및 腹部 壓痛도 減少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葛根解肌湯을 10일간 투여한 이후에는 熱多寒少湯을 투여하여 調理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의 泄瀉 및 自利에 대한 언

급은 다음과 같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太陰人外感腦頤 病論」에서는 “論曰 體熱腹滿自利之證, 外感內觸表裏俱病最為危證也, 當用 桔梗生脈散¹⁾或 梔根白皮一錢 麝香三分調下, 連三四服急救之.”이라 하여 瘟疫시 ‘體熱腹滿自利’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危證이라 하며 桔梗生脈散을 쓰거나, 梔根白皮 麝香 등의 單方을 제시하였다. ‘外感內觸表裏俱病’이라 하였는데 ‘體熱’은 表病의 症候로, ‘腹滿自利’는 裏病의 症候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太陰人內觸胃脘病論」에서는 ‘太陰人一證 有腹痛自利病’에 桔梗生脈散 黃栗梔根皮湯²⁾을 쓸 것을 제시하며 裡之表病의 범주로 보고 있다. 또한 ‘太陰人一證 下痢膿血病’은 太重證이라 하며 桔梗梔根皮丸³⁾을 제시하고 있다. 中風을 腹痛下利의 有無에 따라 나누어 ‘有腹痛下利舌卷不語中風病’은 裡之表病으로 桔梗生脈散 麝香을, ‘無腹痛下利而有舌卷不語中風病’은 裡之裡病으로 牛黃 淸心山藥湯⁴⁾ 淸心蓮子湯⁵⁾을 쓴다고 하였다.

以上에 보는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는 泄瀉 또는 下利를 裏病의 證候(裡之表病)로 해석을 하였고, 이에 대한 治方으로 桔梗生脈散 黃栗梔根皮湯 桔梗梔根皮丸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甲午本에서 제시되고 있는 泄瀉 및 下利의 病證은 辛丑本에서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의 表病 범주의 病證으로 재편되게 된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는 “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當用 太陰調胃湯 表熱證泄瀉 當用 葛根蘿蔔子湯”이라 하여, 泄瀉를 表病에서 설명하고, 그 寒熱을 나누어 治方을 달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太陰人小兒 有

泄瀉十餘次無度者 必發慢驚風 宜用 補肺元湯 豫備 慢風”이라 하여 補肺元湯 쓰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體熱 腹滿 自利者 熱勝則 裏證也 當用 葛根解肌湯 寒勝則 表證而 太重證也 當用 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이라 하여 太陰人 瘟疫에 대한 治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體熱 腹滿 自利者’이며 熱勝이면 葛根解肌湯을, 寒勝이면 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을 제시하고 있다.

以上에 보는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泄瀉 및 自利를 대체로 表病의 범주로 파악하며, 太陰調胃湯 등의 處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表寒證 泄瀉에 해당이 되며, 表熱證 泄瀉로는 葛根蘿蔔子湯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體熱腹滿自利者’ 중에서 寒勝과 熱勝의 구분이 있는데 이는 表裏俱病의 證候로 表病證이 위주인지, 裏病證이 위주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熱勝인 경우는 表裏俱病 證候 중에서 裏病證이 우세한 證候로 裏熱證 泄瀉 내지는 燥熱證泄瀉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겠다.

元持常의 著書 『東醫四象新編』에 제시된 葛根解肌湯은 葛根 三錢, 升麻 二錢, 黃芩 杏仁 各一錢半, 山棗仁炒 桔梗 大黃 白芷 各一錢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治陽毒面赤 斑斑如錦紋 咽喉痛 腫膿血 ○微惡寒發熱 目疼 鼻乾 潮汗 閉澁 消渴 狂譫 身熱 腹痛自利 長感 瘟疫 寒厥五日無汗者服”이라 하였다. 이 處方은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 처음 제시되었던 處方인데 甲午本에서는 黃芩 杏仁 酸棗仁炒 桔梗 大黃 白芷의 用量이 모두 一錢으로 되어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東醫四象新編』에 제시된 主治와 效能 또한 「太陰人外感腦佳 病論」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證候를 분석하여 보면 辛丑本의 表裏病 證候가 混在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이중에 寒厥證에 대한 治方으로도 葛根解肌湯이 제시되고 있는데,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寒多熱少湯 加蟾蜍 및 熊膽散으로 바뀌게 되고, 葛根解肌湯의 역할은 太陰人 肝受熱裏熱病 중 陽毒 瘟疫 등의 治方으로 국한되게 된다. 한편 ‘體熱腹滿自利’에 治方은 甲午本에서 桔梗生脈散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辛丑本에서는 다시 葛根解肌湯으로 제시되게 된다.

- 1) 桔梗生脈散 : 麥門冬 三錢, 山藥 桔梗 黃芩 黃栗 五味子 各二錢, 白果 三枚.
- 2) 黃栗梔根皮湯 : 黃栗 一兩, 桔梗 三錢, 五味子 梔根白皮 各一錢.
- 3) 桔梗梔根皮湯 : 梔根白皮 五錢, 桔梗 三錢, 爲末糊丸 一服盡. 治病疾.
- 4) 淸心山藥湯 : 山藥 三錢, 遠志 二錢 天門冬 麥門冬 蓮子肉 柏子仁 酸棗仁 龍眼肉 桔梗 黃芩 石菖蒲 各一錢, 甘菊花 五分.
- 5) 淸心蓮子湯 : 蓮子肉 三錢, 麥門冬 二錢, 天門冬 山藥 遠志 柏子仁 酸棗仁 龍眼肉 桔梗 黃芩 石菖蒲 各一錢, 甘菊花 五分.

丑 1.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太陰人外感腦頭 病論」에 제시된 葛根解肌湯 用例

조문	내 용
9條	· 今考更定 太陰人病 寒厥四日而無汗者重證也, 寒厥五日而無汗爲危證也, 當用 葛根解肌湯, 調下熊膽三分, 又連用葛根解肌湯二三服. 翌日則晝服 桔梗生脈散, 夜服 葛根解肌湯. 每日如此服 或八九日十餘日, 以至於病快解.
11條	· 朱肱曰 陽毒 面赤斑 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 及 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竭 心下尚燿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12條	· 李梴曰 微惡寒 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則 目疼 不眠 宜解肌湯, 熱入裏則 狂譫 宜調胃承氣湯.
13條	· 龔信曰 三陽病深 變爲陽毒 面赤 眼紅 身發斑黃 或下利黃赤 六脈洪大 宜黑奴丸.
14條	·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15條	· 今考更定 以上諸證, 當用 葛根解肌湯 黑奴丸. 藥不可以不盡善擇美則, 此證 當用 加減解肌湯 皂角大黃湯.
22條	· 今考更定 以上諸證, 目疼鼻乾增寒壯熱燥澀者 當用 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項頰赤腫者 當用 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者 當用 桔梗生脈散.
23條	· 論曰 體熱腹滿自利之證, 外感內觸表裏俱病最爲危證也, 當用 桔梗生脈散 或 梔根白皮一錢 藿香三分調下, 連三四服急救之.

辛丑本の 葛根解肌湯은 甲午本の 葛根解肌湯과는 그 구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藥本이 새롭게 추가되고杏仁 酸棗仁 大黃이 빠지게 된다. 이로서 熱多寒少湯 清肺瀉肝湯과 더불어 太陰人 燥熱證 治療의 主方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2>

上記 患者의 경우 泄瀉의 樣相이 하루 수 차례 臭氣가 심한 暗褐色의 軟便을 보았으며 排便 후에 自覺하는 後重感도 심한 편이었다. 또한 腹部膨滿感 및 심한 腹部壓痛을 호소하였으며, 口燥, 心煩, 舌微紅, 苔薄黃白 등등의 症狀을 호소하였다. 이상을 통해 太陰人 燥熱證에 속하는 病證이라 診斷하였고, 「東醫四象新編」에 제시된 葛根解肌湯을 使用하여 泄瀉 腹部膨滿感 등을 治療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原因不明의 發熱도 해결할 수 있었다. 즉 '體熱腹滿自利'의 證候로 燥熱證泄瀉로 규정할 수 있겠고, 燥熱證 治療 處方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5. 小 結

太陰人 泄瀉 病證은 대부분 表病 범주의 病證으로 診斷하고 治療할 수 있으나, 上記 患者의 경우 '體熱 腹滿 自利'의 양상을 보였고, 裏熱證 泄瀉(燥熱證 泄瀉)로 診斷하여 葛根解肌湯을 투여 臨床症狀의 유의한 호전을 보여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901年版(初版本) 影印本. 四象醫學會刊行. 서울:대성문화사. 1998.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刊行. 서울:한문문화사. 2000.
3. 元持常. 增補東醫四象新編. 서울:綜合醫苑社. 1974.

丑 2. 「東醫壽世保元」甲午本·辛丑本, 「東醫四象新編」의 葛根解肌湯 比較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	「東醫四象新編」
葛根解肌湯	葛根 三錢 升麻 二錢 桔梗 黃芩 杏仁 酸棗仁 白芷 大黃 各一錢	葛根 三錢 黃芩 藥本 各一錢五分 桔梗 升麻 白芷 各一錢	葛根 三錢 升麻 二錢 黃芩 杏仁 各一錢半 山棗仁炒 桔梗 大黃 白芷 各一錢